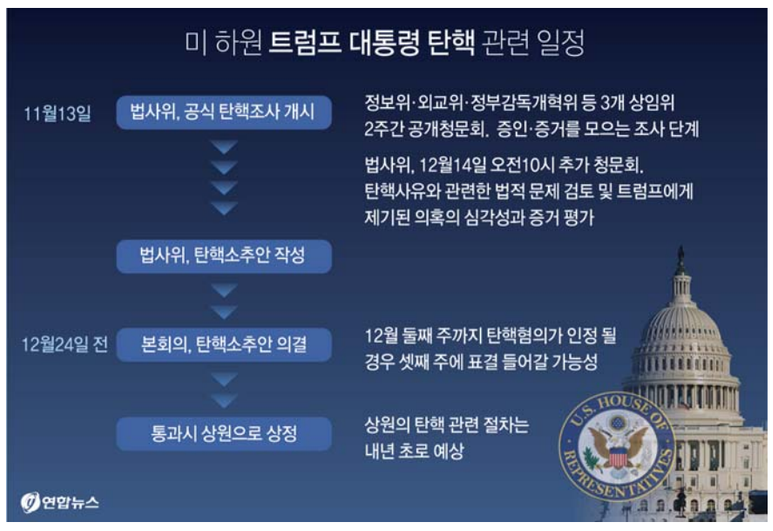
트럼프 탄핵 새 국면…법사위, 법률검토 착수

조사 단계서 혐의 판단 단계 진입
내달 4일 위헌 여부 공개 청문회
법사위원장 트럼프에 초청 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탄핵 논의가 증언·증거를 모으는 조사 단계에서 탄핵 혐의를 판단하는 수순으로 진입,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AP와 블룸버그 통신,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는 내달 4일 오전 10시에 대통령 탄핵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청문회에는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외압 의혹과 관련, 그의 행적에 헌법상 탄핵 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학자 등 전문가 증인들이 나와 증언할 예정이다.

하원을 이끄는 민주당이 정보위와 외교위, 정부감독개혁위 등 3개 상임위를 동원해 탄핵 조사를 해온 가운데 지난 2주간 열린 공개 청문회에 이어 이제는 탄핵소추안 작성 주체인 법사위가 바통을 넘겨받아 추가 청문회를 여는 것이어서 탄핵 정국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보좌관들은 법사위의 첫 청문회는 탄핵 사유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기된 의혹의 심각성과 증거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절차상 하원에서 조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을 작성한다.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상원으로 넘어간다.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과정은 형사법 체계상 기소(형사소추) 과정과 유사하다.

미 헌법상 공직자 탄핵심판 권한은 상원이 가진다. 다만 탄핵심판은 대법원장이 주재한다. 즉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대법원장은 판사 역할을 나눠 맡는 형태다.

그간 하원 정보위 등 3개 위원회가 수사를 해왔다면 이제는 법사위가 법적 판단에 들어가 '공소장' 역할을 할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게 된다. 미 대통령은 반역죄, 뇌물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로 인해 탄핵당하면 면직된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지렛대 삼아 정적이자 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내달 청문회 개최 사실을 알리면서 대통령을 청문회에 '초청'했다.

이러한 하원의 초청에 응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들은 공개청문회에 나온 전문가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얻게 된다.

내들러 위원장은 "위원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귀하가 탄핵조사에 참여할 것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하원의 초청에 즉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그간 대통령의 법률팀이 하원의 탄핵조사 과정에 참여하기는커녕 어떠한 대응도 피해왔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법사위 관계자들은 이제까지 증언을 거부한 증인들의 소환을 추진할 것인지 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내들러 측 보좌관들은 법사위가 추가 청문회 일정을 잡을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은 전날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주 추수감사절 휴일과 휴회가 끝나고 의원들이 복귀하는 내달 3일께 조사 보고서를 법사위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하원 민주당은 9월 24일 탄핵 추진을 위한 조사 착수를 발표한 후 그동안 증언을 청취하고 관련 증거를 검토했다. 또 13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홍콩 선거 참패…고민 깊어진 中

범민주 진영, 행정장관 선거 '들러리' 아닌 '킹메이커' 부상
전문가들 "중도파 행정장관 임명·유연한 정세 대응 등 필요"

지난 24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친중국 진영의 참패에 놀란 중국 중앙정부가 향후 홍콩 정세에 대응할 전략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다.

24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은 전체 452석 중 40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며 친중파 진영에 충격적인 패배를 안겼다.

한 중국 중앙정부 관료는 "일부 친중파 후보가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욕설을 듣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 선거가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친중파 진영의 의석수는 우리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친첸홍 우한대 교수는 "중국 중앙정부는 선거 패배를 어느 정도 예상하였지만, 이처럼 참패를 당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국 중앙정부를 가장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이번 압승으로 범민주 진영이 차기 행정장관 선거에서 '들러리'가 아닌 '킹메이커'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홍콩 행정장관은 1천200명 선거인단의 간접 선거로 선출되는데, 범민주 진영은 이번 선거 승리로 구의원 몫으로 배정된 117명을 독식하게 돼 기존에 확보한 325명을 합쳐 442명에 달하는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됐다. 물론 중국 중앙정부는 충성심 등을 이유로 차기 행정장관 후보를 거부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규모 거리 시위 등 홍콩 시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톈페이룽 베이항대 교수는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에 대한 강경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변화한 정치 지형에 적응한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6일 오후 홍콩 침사추이의 한 거리에서 시민들이 모여 함께 노래를 부르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쑤 난징대 교수는 "친중파 진영은 사회 안정과 질서 회복을 호소했지만, 이는 이번 선거에서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며 "중국 중앙정부는 이제 친중파와 범민주 진영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정장관 후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캐리 람(林鄭月娥) 현 행정장관처럼 철저하게 친중국 노선만 추구하는 인물이 아니라, 친중파와 범민주파 모두 거부하지 않을 중도파 인물을 행정장관 후보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다.

홍콩 전문가인 쑹씨오충은 "(정치개혁 대신)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해 온 친중파 진영의 기존 전략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장에 쏟아져 나온 중산층 유권자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시위 사태 때 친중파 진영이 철저하게 홍콩 정부의 입장을 추종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독일 작센 경찰이 지난 26일(현지시간) 공개수배 전단을 통해 드레스덴 '그뤼네 게뵐베'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보석 장식품 10점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피해액은 1조3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독일 드레스덴 보석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보물들. /연합뉴스

獨드레스덴 박물관 1조 3000억대 보물 털려

지구촌 '박물관 털이' 기승…세계 도난 예술품 3만4천점

유럽 최대의 보석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독일 드레스덴 '그뤼네 게뵐베'에서 벌어진 대형 도난 사고로 세계 각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박물관 털이'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예술품 가격의 상승 때문에 범행동기가 꾸준히 자극을 받는 상황에서 박물관의 보안은 부실하기 짝이 없고 도난품이 회수될 가능성마저 크지 않다는 뒷말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최근 독일을 비롯해 영국,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미술품 도난 사례를 소개하며 이 같은 비관론을 전했다.

전 세계 1천900곳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대표하는 국제박물관위원회는 드레스덴 박물관에 심야에 도둑이 침입한 것은 드문 사례일 정도로 전반적인 박물관 보안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5일 새벽, 독일의 보석박물관 '그뤼네 게뵐베'에서는 1조 3000억대 다수의 진귀한 18세기 공예품이 도난당해 큰 충격을 안겨줬다. 전문가들은 런던의 도난미술품등록소(Art Loss Register)가 수천 점에 달하는 도난 미술품을 지정하고 추적하고 있어 용의자들이 이번 드레스덴 사건에서 훔친 보석을 사고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에서 박물관 도난사건은 이번 드레스덴 사태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4명의 남성이 베를린의 보데 박물관에서 100kg에 육박하는 거대한 금화를 탈취한 혐의로 붙잡혀 올 초 재판이 진행됐다. 이 금화는 아직 박물관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미국에서도 지난 1990년에 보스턴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박물관에 전시된 페르메이르, 렘브란트, 마네, 드가 등의 작품 13점 등 당시 화폐 가치로 5억달러(약 5천500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도둑맞았고,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가 지난 8월 구축한 전 세계 도난 예술품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무려 3만4천여점의 작품이 도난리스트에 등록돼 있다. /연합뉴스

中, 사상 최대 60억달러 해외 채권 발행

매입 수요 200억 달러 몰려

중국이 미국과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상 최대인 60억달러의 해외 채권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7일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는 전날 만기 3년과 5년, 10년, 20년 등 4종류의 채권을 발행했다.

60억달러를 발행하는 데 200억달러의 매입 수요가 몰려 가산금리도 미 국채 대비 35bp~70bp(1bp=0.01%포인트)로 낮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행된 중국 채권 금리는 2~3%로 미 국채의 1.75%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 채권의 인기는 시중 자금이 풍부한 가운데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채권 판매를 담당한 13개 은행 중 하나인 도이체방크의 관계자는 "아시아 국가 중 최대 규모의 해외 채권발행"이라고 말했다. 중국 재정부는 이번 채권의 낮은 금리가 자국의 은행 등 다른 기업들의 달러화 표시 채권발행의 금리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은 2년 전까지 13년 연속 중단했던 해외 채권발행을 2017년 20억달러, 2018년 30억달러 등으로 재개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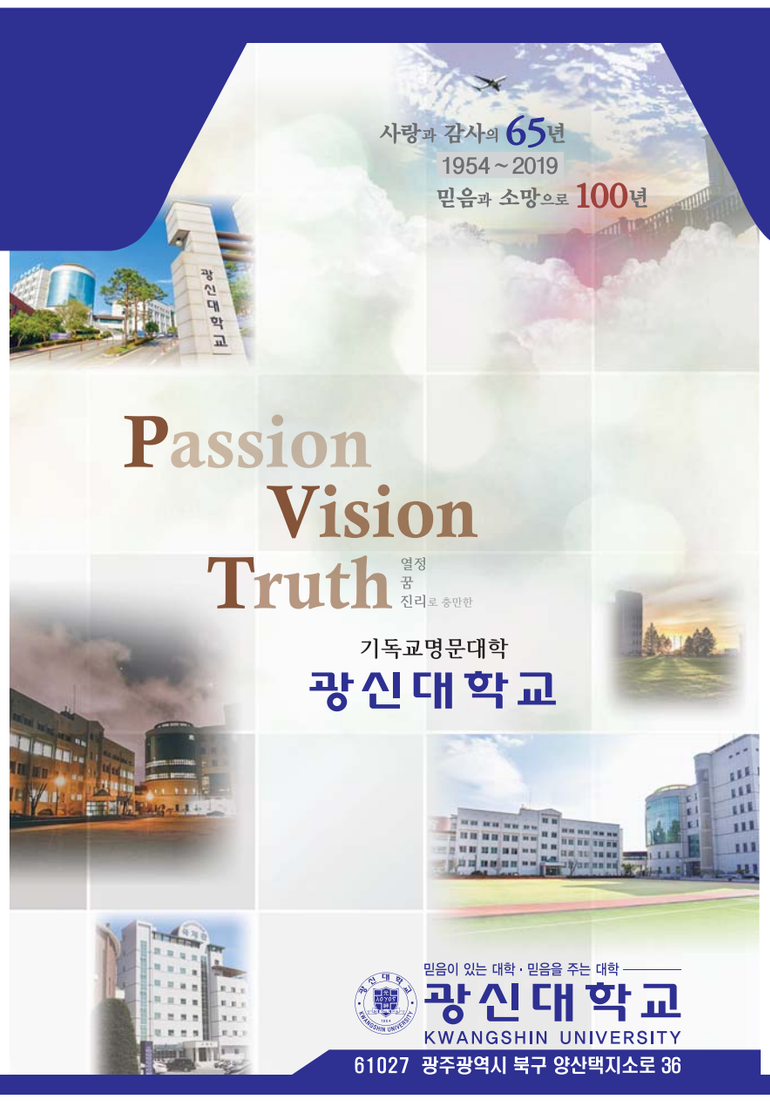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학과	정시
인문	신학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실 용음악학 전공)	5
총계		28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9. 12. 26(목) ~ 31(화)
· 전 형 일 : 2020. 1. 7(화)



입학문의 ▶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0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7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8
		상담심리치료학과(D.C.S.)	8
		코칭심리학과(D.Psy.)	8
		통합예술치료학과(D.C.S.)	5
	석박사통합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0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전형일정 · 원서접수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2019. 11. 19(화) ~ 11. 27(수)
[일반전형]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2019. 12. 2(월) ~ 12. 11(수)